

이란 핵 말살했다더니...“몇 달 내 우라늄 농축 생산 재개”

IAEA 전망...트럼프 ‘수십년 후퇴’ 주장과 배치 논란 이어질 듯
美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휴전 기회삼아 핵시설 수리 작업 진행”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핵시설 손상에도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란이 몇 달이라는 기간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다단계)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프로그램이 말살돼 수십년 후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핵시설 폭격 성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기존에 생산했던 약 400kg의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폭격 전 이동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서 “일부는 공격의 일부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이동됐을 수 있다”고 답했다.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U-235)의 농도가 60%에 달하며 핵탄두의 원료로 쓰이는 농도 90% 정도의 무기급으로 단시간에 농축될 수 있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 우라늄 농축 활동의 핵심인 포르도 핵시설 사찰을 이란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휴전을 기회 삼아 이란이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지난 27일 위성 영상업체 막사테크놀로지(이하 막사)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토대로 나탄즈 핵시설에서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ISW는 “이란은 미국이 투하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형성된 큰 구멍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지상 폭격 현장에 텐트 두 동과 트럭 한 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언론 등에서는 이란이 나탄즈에 묻힌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ISW는 덧붙였다. 같은 날 촬영된 포르도 핵시설 주변에서도 차 여러 대가 포착됐다. /연합뉴스



이란에서 추방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2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이에 있는 이슬람 칼라 국경 검문소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인도 물난리...최소 79명 사망

최근 본격적으로 몬순(monsoon) 우기가 시작된 파키스탄(사진)과 인도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70명 넘게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30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몬순 우기가 시작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폭우로 최소 45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과 가까운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툽와주에서 어린이 10명을 비롯해 21명이 숨져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이들 중에는 스와트 계곡에서 발생한 홍수로 강변에 있다가 숨진 일가족 등 14명도 포함됐다.
인도 접경 지역으로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펀자브주에서도 13명이 사망했다. 이들 가운데 8명은 폭우로 건물 벽이나 지붕이 무너지면서 숨진 어린이였고, 나머지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와 발루치스탄주에서도 폭우로 11명이 사망했다.
NDMA는 또 나흘 동안 전역에서 주택 89채가 파손되고 가축 55마리가 죽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달에도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 최소 32명이 숨졌다.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주에서도 최근 9일 동안 폭우로 3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74명이 다쳤다.
이 기간 주 정부 건물을 비롯해 도로와 주택 등이 파손되거나 무너져 피해액은 832만 달러(약 113억원)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트럼프 간섭 때문?...이스라엘 법원, 네타냐후 재판 연기

트럼프, 총리 사면·소송 취하 촉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정부패 혐의 재판이 전격 연기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예루살렘 법원은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에 예정된 심리를 취소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은 이란과 휴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향후 2주간 재판 면제를 요구해왔다.
법원은 애초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거절했으

나 네타냐후 본인, 군사정보 수장,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입장을 바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과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영웅’으로 평가하며 “중대 임무를 지닌 인사를 겨냥한 ‘매녀사냥’을 중단하라”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이 지속되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법원을 압박해왔다.
이는 외국의 사법에 개입하는 노골적 행위로 국

제관계의 금기인 내정간섭을 통한 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논란이 뒤따랐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타이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독립국의 사법 절차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배우자와 함께 정치적 지원의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5000만원) 어치 사치품을 억만장자들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스라엘 안팎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권력 상실에 따른 부정부패 혐의 유죄판결이 두려워 전쟁을 지속한다는 의심도 종종 관측된다. /연합뉴스

‘자국군 협담’ 태국 총리 지지율 급락

야권 사퇴 압박...직무 정지 대비 문화부 장관 겸직 추진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과의 통화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협담해 여론의 못매를 맞은 패동탄 친나와 태국 총리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설문조사 결과 패동탄 총리 지지율은 3월 30.9%에서 이달 9.2%로 급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5일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달 28일 국경지대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군이 총격전을 벌이면서 양국 간 갈등이 확대된 가운데 패동탄 총리와 훈 센 의장의 통화가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패동탄 총리는 훈 센 의장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저자세를 보였고, 국경 지역을 관할하는 자국

군 사령관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이후 야권은 총리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며, 28일에는 수도 방콕에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상원이 헌법재판소와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에 총리 탄핵을 청원해 패동탄 총리는 법적 위기에 몰렸다.
현재는 이르면 1일 탄핵 심판 청원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가 심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패동탄 총리는 직무 정지 가능성에 대비해 문화부 장관을 겸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려도 장관으로 내각에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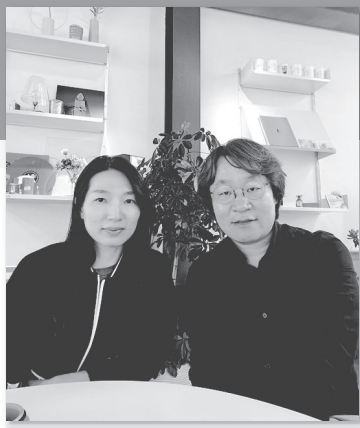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